

모든 인류는 한 피 받은 한 몸

# All humanity in this world is one blood and one body

To have the heart of God is nothing but to receive the Spirit of God. Practically, It is to receive the Spirit of God from those who have received the Spirit of God. It is also the same to be born again by the Holy Spirit. Also, in the Bible, the words to always forsake yourself is there.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영을 모신 자로부터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성경에는 '나를 항상 버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Why did it tell us to forsake the self? It is because 'I' is the devil, It is because 'I' is the sin. The spirit, claiming 'I', is original sin, hereditary sin, self-crime, and the apple of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On that ground, the Bible tells us to forsake the self, but still, the ignorant of the Bible teaches like "I believe in God so that I enter the Heaven," 왜 나를 버리라고 했을까요? '나'라는 것이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나'라고 주장하는 영은 원죄요, 유전죄요, 자범죄요, 선악과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나를 버리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무수한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간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Therefore, the Bible is saying that the 'I' cannot be saved. 성경은 '나'라는 것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The saying of the kingdom of God is wherever God is, and this is the same as saying that the 'I', a human sinner, cannot be saved.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말은, 죄인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The saying that the kingdom of God is wherever God is, therefore, means that God who has been born again by the

Holy Spirit will gain salvation and God enter Heaven. And since heaven is in the heart of the living, dead people cannot enter heaven.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말씀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이나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살아 있는 자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Based on the words in the Bible, "die for sin", "enter hell for your sins", when a person dies, he died because of sin. Therefore, the saying that the dead enter Heaven would be unbiblical. "죄로 인해 죽는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간다"는 성경 말씀대로 사람이 죽으면 죄로 인해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비성경적입니다.

Therefore, the dead died because of sin; people die because they couldn't solve their sins. That is why the saying that the dead entered heaven is unbiblical. Therefore, it is unbiblical to say that the dead have gone to the kingdom of God, and it would be a false testimony. 그러므로 죽은 사람은 죄 때문에 죽고, 사람이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천국에 들어갔다는 말은 비성경적 말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가 하늘나라에 간다는 말은 비성경적이며 거짓 말입니다.

Therefore, the Bible has clear words saying that those who are born again cannot die, and the dead cannot enter the kingdom of God. 성경에는 거듭난 사람은 결코 죽을 수 없고, 죽은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If you look at the words in John 1:1 and below, God created this world with the word, and the word is life, and the

life is light, And light is the Holy Spirit, and the Holy Spirit is the Spirit, and the Spirit is light, and the light is life. So, life itself is spirit, and the spirit itself is life. 오한복음 장 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만드셨고 말씀은 생명이며 생명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빛은 생명이며 생명은 영이며 영은 빛이며 빛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 자체가 영이며 영 자체가 생명입니다.

Also, it is recorded in Proverbs 4:23 that the source of life is in the heart. The passage, "the source of life is in the heart", means the life itself is the heart, and the heart itself is life. This word means life itself is spirit, and spirit itself is life. And life itself is the heart, and the heart itself is the spirit. 또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 있다고 잠언서 4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 있다"라는 말은 생명 그 자체가 마음이고, 마음 그 자체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생명 그 자체가 곧 영이고, 영 그 자체가 곧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생명 그 자체가 곧 마음이고, 마음 그 자체가 곧 영입니다.

Also, in Leviticus 17:11, which says that blood is life, and in Genesis 9:4, it is written that blood is life. The saying is that life is blood, and blood is life, and life itself is spirit, and spirit itself is life, and life itself is blood, so blood itself is spirit. These Bible verses are very scientific. 또 피가 생명이라는 레위기 17장 11절과 창세기 9장 4절에는 피가 생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생명이 피이고, 피가 생명이며, 생명 자체가 영이고, 영 자체가 생명이며, 생명 자체가 피이므로, 피 자체가 영입니다. 이 성경 구절들은 너무나 과학적입니다.

Today, the human heart is like a blood bag, but we don't call it a blood bag; instead, we call it the heart. Because the activity of blood is the activity of the

mind, therefore we call it the heart. 오늘 날 인간의 심장은 피 주머니와 같지만 우리는 그것을 피 주머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그것을 심장(心臟)이라고 부릅니다. 피 작용이 마음 작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심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Hence, blood is the mind, and the mind is life, and life is blood, and life is spirit. So, blood is spirit, and the spirit itself is mind, and the Bible clearly states the spirit itself is life. Therefore, if blood is a spirit, the blood becomes flesh and becomes a body. It is written in the Bible that the human body is a spirit. 따라서 피가 곧 마음이고 마음이 곧 생명이며 생명이 곧 피이며 생명이 곧 영입니다. 따라서 피가 곧 영이며 영 자체가 곧 마음이며 성경에는 영 자체가 곧 생명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가 영이면 피가 살이 되고 몸이 됩니다. 이렇게 사람의 몸이 영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Therefore, the saying "born again by the Holy Spirit", is the word with a predicate implication that the human body is a spirit and a god. 따라서 '성령으로 거듭나리'는 말은 인간의 몸이 영이고 신이라는 전체가 내포되어 있는 술어입니다.

Therefore, it is the words that are saying the human body is spirit. Therefore, if a person's body is a spirit, the person's body must not die so that we can say the person's spirit is not dead. In contrast, if a person's body dies, it tells the person's spirit died also. Therefore, this translation is the mate that exactly matches the Bible saying, "Man dies for sin." 그러므로 사람의 몸이 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몸이 영이라면 사람의 몸이 죽지 않아야 사람의 영이 죽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의 몸이 죽으면 그 사람의 영혼도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풀이하는 것은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성경 말씀과 정확히 짝이 맞는 말씀입니다.

Therefore, it is a popular but unbiblical myth that souls go to heaven after people's death. 대개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으로 대중들에게 알려져 있지만 그것은 비성경적이며 꾸며낸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Today, this man came here with the secret of not dying in the human body. 오늘 이 사람이 '인간 몸이 죽지 않는 비결'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The human body was initially in the image of God, which was immortal. But the moment the devil occupied them, they were turned into a life that had no choice but to die. Therefore, the devil's element, that is, the element of death, that is, the seed of sin, must be removed so that a person cannot die. 인간의 몸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죽지 않는 존재였으나 마귀한테 점령당하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지 않으려면 마귀의 요소, 즉 사망의 요소가 되는 죄의 근원을 제거해야 합니다.

Therefore, here, regard your brother's body as your own, your brother's sin as your own, and your brother's fault as your own. Those are what this man is preaching. All human beings are one body. There is not one person who is not one body. 그러므로 여기(승리재단)에서는 '형제의 몸을 내 몸처럼 여기고,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기고, 네 형제의 잘못을 나의 잘못으로 여기라.' 바로 이것이 이 사람의 설교입니다. 인류는 한 몸입니다. 한 몸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Therefore, all people in this world are made of mother's and father's blood, made with grandparents' blood, made with great-grandparents blood, made

with great-great-grandparents' blood, and so on. If you keep going up previous generations, you were made with Adam and Eve, God's blood.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피로, 할아버지 할머니의 피로, 증조부의 피로, 고조부의 피로, 등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전 세대로 계속 올라가면 하나님의 피로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졌습니다.

Therefore, all humanity in this world is one blood and one body. Consequently, it is normal to think as one body.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한 피 받은 한 몸입니다. 따라서 한 몸처럼 생각해야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However, thinking like someone else's body is the devil's thinking, the same spiritual situation of a mentally deranged person because the devil has overshadowed it. Hence, all humanity in this world is in a spiritual state of mental disease. 그러나 다른 사람의 몸처럼 생각하는 것은 마귀의 생각이고, 마귀한테 씌여 가지고 영적으로 미친 상태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영적으로 정신이상의 병에 걸린 상태에 있습니다.

When the devil's spirit is removed from the state of madness, the normal spirit, God, governs them, and God restores the immortal body. With this, this man would like to say this much of today's sermon and continue speaking next time. Thank you. 미친 상태에서 마귀의 영이 제거되면 정상적인 영인 하나님이 우리들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죽지 않는 몸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로써 이 사람은 오늘 설교는 이 정도만 하고 다음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987.9.27. 미국 뉴욕방송국 TKC에서 이긴자 조희성님의 설교(TV방송 총4회 중 첫회분 영문번역)

## 감로해인으로 죽음에서 영생을 얻으니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가 아니겠는가?

### 出將論(三) 출장론

牛聲之村見不牛 우성지촌견불우로  
人言一大尺八寸 인언일대척팔촌을  
恨心 한심하다  
草露人生 초로인생  
弓乙村 공을촌을 모르거든  
呼天村 호천촌을 先壽後 선심후에  
呼母村 호모촌을 更問問문하소  
父母村부모촌을 모르거든  
三人一雙弓道 삼인일쌍쌍궁도에  
至誠感天天神化 자성감천천신화로  
武陵桃源 무릉도원 차차보자  
修道先出容天村 수도선출용천박에  
天崩地坼素砂立 천붕지택소사립을  
靑鶴福處牛腹洞 청학복처우복동이  
三峰山下半月有 삼봉산하반월유로  
深藏窟曲囊中世界 심장굴곡낭중세계  
靈泉水 영천수가 恒流 항류로다

소 울음소리 들리는 마을에서 소는 볼 수 없고 신천촌(信天村)을 모르니 한심하다. 초로인생들이여 공을촌을 모르거든 호천촌(呼天村)=하나님을 부르는 마을을 먼저 찾아본 후에 호모촌(呼母村)=엄마를 부르는 마을) 다시 물어보소. 소 울음소리, 소는 영적인 의미이다. 천마지우(天馬地牛)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엄마로서 역할을 한다. 그 엄마를 부르는 소리 또는 그분의 진리 말씀을 말한다.

부모촌(父母村: 천지의 어버이가 계시는 마을)을 모르거든 심승의 도를 지성감천(至誠感天)으로 닦아 사람이 하나님(天神)으로 변화되는 무릉도원선경(武陵桃源 仙境)을 찾아보소. 삼인일석(三人一夕)은 닦을 수修) 자의 파자이며 쌍궁(雙弓)은 궁궁(弓弓)을 말하며 심승이 된다. 심승(十勝=마귀를 이기신 하나님)의 도를 닦아 먼저 나온 분은 하늘을 닦은 박(朴)씨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져도 소사(素砂)에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의미의 제단을 세우게 되느니라. 청학 즉 신선이 날고 드는 우복동(牛腹洞=十)은 삼봉산 아래 반달 즉 마음 심(心)자에 있고 마음속 깊이 감추어져 있는 굴곡이 진 주머니 속의 세계와 같은 곳에서 신령한 샘물이 항상 흘러나오니라.

靑樹古里碧山村新 청사고리벽산촌신  
非山非野十勝處 비산비야십승처라  
海印龍宮閑日月 해인룡궁한일월이요  
木人新幕別乾坤 목인신막별건곤을  
風驅惡疾雲中去 풍구악질운중거요  
雨洗冤魂滄外消 우세원혼소외소라  
別有天地非人間 별유천지비인간이요  
武陵桃源紫霞島 무릉도원자하도를  
靑牛顧谿活命水 하우고계활명수는  
牛姓村 우성촌에 隱潛 은잠하니

水昇火降隱妙法 수승화강은묘법  
無智者 무지자가었지알고  
天牛耕田田理 천우경전전전리로  
寺畵七斗作農 사답칠두작농일세

할터에 세워진 푸른 정자가 있는 옛 마을이 푸른 산속의 신촌(新村=새하늘 새 땅=神村)으로 되었으니 바로 산도 들도 아닌 비산비야 심승처로다. 감로해인이 가득한 용궁(龍宮=정도령이 좌정한 곳)은 한가로운 밝게 빛나고(日月=明) 목인(木人)이 거하는 신의 장막(新幕=神幕)은 별천지라 악한 질병을 바람으로 몰아 구름 속으로 보내버리고 감로 해인의 단비로 원혼을 씻어 바다 밖으로 소멸시키니 인간이 아닌 신선이 사는 세계요 신선이 산다는 무릉도원 자하도가 바로 여기로다.

그림 속의 소가 시내를 돌아보는 '생명수(生命水)를 찾아라'라는 것이요. 그 생명수는 우성촌(牛姓村=정도령이 계신 곳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데 지혜 없는 자가 그 속에 수승화강(水昇火降)의 묘법(妙法)이 숨겨져 있음을 어찌 알겠는가? 하늘의 소가 밭을 가는데 이는 음전(陰田) 양전(陽田)의 영적인 밭인 십승(十勝)의 밭으로 사답칠두(문무두우 성文武斗牛星) 즉 복두칠성이 짓는 참된 인간 농사이니라.

巨彌 거미하다 牛姓村 우성촌의  
一心修道 일심수도 삼엇더니  
甘露如雨循環裏 감로여우순환리에  
日就月將結實 일취월장결실하니  
盤石湧出生命水 반석용출생명수로  
天下人民解渴 천하인민해갈하니  
弓乙十勝易經法 공을십승역경법이  
死中九生天恩 사중구생천은일세  
靑牛顧谿十勝法 하우고계심승법이  
巽震雞龍靑林 손간계룡청림일세  
自古由來儒士 차고유래유사들이  
通理者 통리자기니구누구  
雞龍鄭氏海島真人 계룡정씨해도진인  
易數不通 역수불통 모르오니  
十年工夫修道者 십년공부수도자들  
前功可惜哀懷 전공가可惜저롭다

크고 위대한 미륵불이 계신 우성촌에서 일심 정성으로 수도하였더니 단비와 같은 감로 해인이 빙글빙글 돌면서 내리는 속에서 감로해인이 털구멍으로 들어가서 피 속의 더러운 마귀를 죽여 나날이 다달이 영적으로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즉 죽지 않는 몸으로 변하게 되느니라.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명수로 천하 인민의 갈증을 해소시키니 공을 십승의 역경법(易經法)은 죽음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니 하늘의 크나큰 은혜가 아니겠는가?

그림 속의 소가 시냇물(영원한 생명수)을 돌아보는 심승법을 뜻함이니 손진계룡청림을 가르킴이라. 손괘는 계(鷄=닭) 진괘는 룡(龍)이며 손진은 계룡이고 청림도사를 말한다. 이는 72궁 정도령이 손(巽)이며 81궁 정도령이 진(震)이다. 81궁 속에 72궁이 함께 있으니 81궁은 손+진이 된다. 청림의 청(靑)은 동방갑을삼팔목의 청이며 림(林)은 양목(두 나무=감람나무와 가자) 72궁 81궁을 말하고 마지막 81궁 속에 72궁이 있으니 결국 81궁이 된다. 72궁은 목토(木兔=나무토끼)이고 81궁 금구(金鳩=금 비둘기)인데 81궁 금구속에 목토가 같이 합해져 있으니 81궁을 목토금구(木兔金鳩) 상합지인(相合之人)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81궁이 바로 우리가

고대하던 정도령 미륵불 구세주가 되는 것이다. 천지개벽의 주인공이며 죽는 세상을 안 죽은 세상으로 만드는 주인공이다. 이는 강증산 선생이 말한 '내 뒤에 두 사람이 더 나온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유교의 선비 중에 역의 진정한 이치를 통달한 자 누구이던가? 해도(海島=海隅半島=한반도)에 오신 진인하신 계룡 정도령은 역시(易數)에 통달한 자가 아니면 알 수 없으니 십 년을 공부한 수도자들이 이전에 힘들게 애를 쓴 노력이 참으로 아깝고 애처롭도다.\*

박명하 / 고서연구가  
010-3912-5953  
myunghpark23@naver.com

##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승리신문은 독자들의 정성어린 성금으로 만들어집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윤봉수 편집인 박태선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됨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14679 홈페이지 <a href="http://www.victor.or.kr">www.victor.or.kr</a>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